

새정치 2·8전대, 당대표 후보 진영이 본 초반 판세

# 朴 “초반승기 확고...경험·경륜 기대” 文 “전반적인 우세...진정성 먹힐 것” 李 “세대교체 바람...‘빅2’도 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오는 18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중반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 당권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지원·문재인 후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 분석한 초반 판세를 들어봤다.

◇박지원 후보=당심을 기반으로 초반 승기를 확고히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취합해 볼 때, 박 후보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 문 후보에 밀리는 두 자릿수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추세는 중반전에 돌입하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권과 대권 분리’ 주장에 대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권 창출을 두 번이나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 후보의 경험과 경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과 관련,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노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어 문 후보의 지지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

도 내놓았다.

다만, 일반당원과 일반시민에서 대선 후보를 지낸 문 후보의 인지도에 밀리고 있지만 그 차이는 5.5대 4.5 정도로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후보=전반적인 판세는 예상대로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가 일반 당원과 일반 시민에서 박 후보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권리당원과 대의원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세론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결국 문 후보 쪽으로 당심과 민심의 저울이 기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후보가 호남 민심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적 성향의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문 후보의 진정성이 먹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진영에서는 광주·전남·전북의 온도차도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전남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광주는 바닥 민심의 분위기가 좋고, 전북에서는 문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더욱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 속으로 파고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후보 진영에서는 초반 승기를 확고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인영 후보=예비 경선 통과를 기점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 후보의 바람으로 박지원·문재인 ‘빅 2’ 구도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지역적·계파적 한계와 ‘회전문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빅 2’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중반전에 들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박지원 후보를 넘어서고 막판에는 ‘계파 프레임’의 취약점이 있는 문재인 후보를 제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인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두 번의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호남 민심이 이번 전대에서 ‘세대교체’를 선택, 수권 정당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취약점으로는 ‘빅 2’에 비해 인지도가 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남의 지지가 충분치 않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문희상 새정치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 “올해 개헌 못하면 영원히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개헌에도 끝드타임이 있다. 1년 동안 큰 선거가 없는 이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

통령은 국회에 ‘갑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없다”며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나. 왜 헌법 논의조차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약의 근원은 제약적 대통령 중심제에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형, 분권형 대통령제

로 가야 한다”고 지론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남북문제와 관련,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공동번영과 동북화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 진보신당 창당 세력인 ‘국민모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으로 서운하다. 섭섭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신당 참여설 전정배 전 의원 “광주 서을 보선 적극 대처하겠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으로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정배 전 의원은 13일 4·29 광주 서구를 보결 선거와 관련, “양식 있는 광주 시민들 및 각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이번 선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히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MBS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선거를 비전을 잃은 무기력한 야당을 되살리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저 자신이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야권 안팎에선 사실상 출마 가능성이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결 선거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그는 “이번에야말로 호남에서 좋은 개혁정치세력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새 지도부가 이번에도 ‘그 나뭇잎에 그 밥’으로 (공천)한다면 광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당 합류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광망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신당 창당 작업에 대해서도 “제1야당이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자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의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안철수, 권토중래?

###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 등 옛 동지들과 관계 회복 세규합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사진) 전 공동대표가 옛 동지들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권토중래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우선 13일 국회에서 열린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해법찾기’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신년 특집좌담회를 열었다. 기초강연을 맡은 장 교수는 과거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으로 활약했으나, 독자 신당 창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 전 대표와 일부 의견차를 보이며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장 교수를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경제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듣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을 기울인 끝에 1년여 만에 공식



행사를 함께하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때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정치적 동지 관계를 맺었던 박원순 시장과도 지난달 26일 만찬 회동을 하면서 역시 관계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당시 박 시장과의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히 전대 이후 당의 진로를 놓고 박 시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전 대표 주변에서는 과거 핵심 측근이었던 김태전 전 대변인 등과의 관

계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와해한 자신의 정치세력을 복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직 사임 후 5개월간 당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정책 공부와 총장기 비전 마련에 주력해 온 안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의원의 전대 출마와 맞물려 야권 내 대선주자 경쟁구도를 조기 접합시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측근 인사는 “안 전 대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안철수식 해법’을 제시하고, 전대에서 불거지는 고질적 계파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당의 리더십 구축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사회 각계의 미래세대 지도자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사회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 전남과학대학교

2015학년도 신규 직원 및 조교 채용

채용분야 - 신규직원, 조교

채용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세부자격 및 우대사항)
학사지원처	1명	-	- 대학(원) 졸업자 이상(졸업예정자 가능) - 방사선물리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 소지자(필수) - 컴퓨터활용능력(문서작성, MS-Office) 가능자
e-스포츠과	1명	개인코치	- e스포츠 전공자 우대 - e스포츠산업체 경력 2년이상(필수) - 군복자

1. 지원자격  
- 본 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각 채용분야 비교사항 참조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내외, 자유형식)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마. 공인외국어 성적표, 자격증,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제출기한 : 2015년 1월 16일(금) ~ 1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에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4. 제출처 : 본 대학 행정지원처-우편접수(061-360-5027)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

5.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5년 1월 28일(월))-개별적으로 통지  
나. 면접심사: 인성 등 심사  
다. 최종합격자: 개별적으로 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응,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모든 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서류)  
나. 해당분야에 적합자가 없을 시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서류 접수 후,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함  
마. 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지원율이 저조하여 심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재공고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바. 최종 임용확정 후에도 중병사실이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지원서류에 지원분야 필히 작성  
아. 서류 제출시 전남과학대학교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필히 제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경의 스타를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십시오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친화 문의하서면 자재한 연내대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학 부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2. 2(월)  
② 전 형 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예능	음악 학 과	6	2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